

광주FC 이순민 아시안컵 노린다... '클린스만호' 승선

26~31일 국내 훈련 소집 명단 발표

조현우·김영권 등 국내파 11명

황인범·조규성 등 해외파 5명

28일 '카타르 최종 명단' 발표

2023시즌 '베스트11'에 빛나는 광주FC 이순민이 아시안컵을 노린다.

대한축구협회가 내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3 AFC 아시안컵에 대비한 '클린스만호'의 국내훈련 소집 명단을 18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은 아시안컵 최종명단 후보에 있는 K리그 선수들과 해외파 중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선수 16명으로 구성됐다.

광주 미드필더 이순민도 다시 한번 클린스만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이순민은 지난 9월 웨일스와의 친선경기를 통해 A매치 데뷔전을 치른 뒤 꾸준히 대표팀에서 뛰고 있다. 광주의 3위 질주를 이끈 이순민은 K리그 시상식에서는 베스트11 트로피도 차지했다.

이순민과 함께 선발된 국내파 선수는 조현우·김영권·정승현·김태환·설영우(이상 울산현대), 이기제(수원삼성), 김주성(FC서울), 김진수·문선민·박진섭(이상 전북)으로 총 11명.

해외파로는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황인범(FK 츠르베나 즈베즈다)과 함께 조규성(미트윌란), 이재성(마인츠), 정우영(VfB 슈투트가르트), 송범근(쇼난벨마레) 등 5명이다.

훈련은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K리그 선수들은 26일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해외파 5명은 개인 일정에 맞춰 훈련에 합류한다.



광주FC의 이순민이 26일부터 진행되는 2023 AFC 아시안컵 대비 국내 훈련에 소집됐다. 이순민은 국내파 11명, 해외파 5명 등 16명의 소집 멤버들과 아시안컵 최종명단에 도전한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최근 K리그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소집된 선수들은 실의 훈련 없이 실내에서 체력 상태와 피로도 등을 점검하는 등 체력 단련 위주로 컨디션 조절을 하게 된다.

클린스만 감독은 "시즌을 마치고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대회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적절한 휴식과 훈련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갖추고 카타르로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훈련

의 목적이다"고 밝혔다. 아시안컵의 최종 명단은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명단이 23명에서 3명 늘면서 26명이 카타르로 간다.

26명의 선수 중 매 경기 23명이 등록되고, 나머지 3명은 테크니컬 시트에서 경기를 지켜보게 된다.

한편 아시안컵은 내년 1월 12일 개막해 2월 10일

까지 계속된다. 한국은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E조에 편성됐으며 1월 15일 바레인과 대회 첫 경기를 치른다. 1월 20일에는 요르단을 상대하고, 1월 25일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경기는 모두 오후 8시30분에 진행된다.

대표팀은 마지막 담금질을 위해 내년 1월 2일 전지훈련 캠프지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이동한다.

◇축구국가대표팀 12월 소집명단(16명)
▲GK: 조현우(울산현대), 송범근(쇼난벨마레)
▲DF: 김영권·정승현·김태환·설영우(이상 울산현대), 김진수(전북현대), 이기제(수원삼성), 김주성(FC서울)
▲MF: 이순민(광주FC), 이재성(마인츠), 황인범(FK 츠르베나 즈베즈다), 정우영(VfB 슈투트가르트), 문선민·박진섭(이상 전북현대)
▲FW: 조규성(미트윌란) /김여울 기자 wool@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왼쪽 두 번째)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15라운드 슈투트가르트와 홈 경기에서 골을 넣고 있다. 김민재는 이날 분데스리가 데뷔 골과 데뷔 도움을 한꺼번에 달성하며 팀의 3-0 대승에 힘을 보탤다. /연합뉴스

김민재, 분데스리가 데뷔골·도움 '맹활약'

슈투트가르트에 3-0 완승... 정우영과 16분간 '코리안더비' 도

'괴물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코리안 더비'에서 비디오판독(VAR) 악재를 이겨내고 '데뷔골+데뷔도움'의 맹활약을 펼쳤다.

뮌헨은 18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슈투트가르트와의 2023~2024 독일 분데스리가 15라운드 홈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트린 헤리 케인과 1골 1도움을 작성한 김민재의 '쌍끌이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승리했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데뷔 이후 정규 리그 14경기(13라운드는 폭설로 연기) 만에 데뷔 골과 데뷔도움을 한꺼번에 터트리는 기쁨을 맛봤다.

승점 35를 기록한 뮌헨은 한 경기를 더 치른 선두 레버쿠젠(승점 39)을 승점 4차로 추격했다.

이날 슈투트가르트의 '태극전사 공격수' 정우영

이 후반 32분 교체로 출전, 김민재와 그라운드에서 후반 추가시간까지 16분여일 동안 경쟁하며 '코리안더비'도 펼쳐졌다.

뮌헨은 전반 키프트 2분 만에 '골잡이' 케인의 선제 결승골이 터져 쉽게 경기를 풀었다.

후반에서 투입된 패스를 레오이자네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뛰어나온 골키퍼까지 제치고 내준 패스를 케인이 골대 정면에서 오른발로 밀어 넣었다.

김민재는 전반 25분 프리킥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한 뒤 알렉산드르 파블로비치가 올린 킥을 머리로 받아 득점에 성공하는 듯했다.

하지만 주심은 VAR 심판과 교신한 뒤 김민재의 오프사이드를 선언하며 골 취소 판정을 내렸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뮌헨은 후반 10분 만에 추가골을 터트렸고, 케인과 김민재가 합작해냈다.

페널티지역 왼쪽 엔드라인 부근에서 프리킥을 떠난 뮌헨은 파블로비치가 골대 정면으로 볼을 투입했고, 김민재가 골 지역 오른쪽에서 헤더로 패스한 볼을 케인이 다시 헤더로 추가골을 꽂았다.

김민재의 분데스리가 1호 도움 순간이었다. 뮌헨의 마지막 득점은 김민재의 몫이었다.

김민재는 후반 18분 파블로비치의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골 지역 정면으로 쇄도하며 헤더를 시도했고, 볼은 상대 수비수를 맞고 굴절되며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뮌헨은 김민재의 득점을 마지막으로 3-0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경기가 끝난 뒤 소파스코어와 후스코어드닷컴은 나란히 김민재에게 케인보다 높은 팀 내 최고 평점을 줬다.

소파스코어는 8.3점(케인 8.2점), 후스코어드닷컴은 8.8점(케인 8.5점)을 줬다.

/연합뉴스

'9연패' AI페퍼스 부상 악재 최장신 염어르형 '시즌 아웃'

내년 1월 무릎 수술

AI페퍼스가 염어르형 없이 남은 시즌을 치르게 됐다.

2년 차 미들 블로커 염어르형이 내년 1월 무릎 수술을 받는다. 염어르형의 이번 수술은 "앞으로의 선수 생활을 위해서"다.

2004년생 염어르형은 신장 194cm로 V리그 여자부 국내 선수 중 가장 큰 키를 갖고 있다. 2022~2023시즌 전체 1순위로 페퍼스에 입단하며 기대를 불러일으켰지만 부상으로 인해 지난 시즌 2경기 출전에 그쳤고, 이번 시즌에는 9경기만 치렀다.

고교 시절에도 무릎 수술을 한 적이 있는 그는 이번년도 초에도 한 차례 수술을 받았다. 이번 수술까지 받으면 벌써 세 번째 무릎 수술이다.

페퍼스 관계자는 18일 "염어르형이 내년 1월 중 오른쪽 무릎 반월상연골(내외측순상) 제거 수술을 받는다"며 "선수와 부모, 팀이 논의한 끝에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고민해 수술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페퍼스는 시즌 초반 경기에서 한 세트에 만 염어르형을 기용하며 매 경기 몸 상태를 확인해 왔다.

조 트린지 감독은 염어르형이 한 세트 이상을 뒀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더 오래 코트에 머무르게 할 계획이었다. 몸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염어르형을 기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

었지만, 조 감독은 "데이터로 봤을 때 염어르형이 뒀을 때 상대 공격률이 더 낮아졌다는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간 무릎 충격을 줄이기 위해 체중감량을 비롯한 관리를 해왔던 염어르형은 팀 훈련에도 꾸준히 참여했지만 이번 시즌 경기를 소화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연골 제거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이후 염어르형은 6~9개월의 재활 기간을 거쳐 근력 키워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염어르형 없이 3명의 미들 블로커 필립스, 하혜진, 서재원으로만 남은 시즌을 치르게 된 페퍼스는 19일 오후 7시 화성종합실내체육관에서 IBK기업은행을 만난다.

이번 시즌 염어르형이 코트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남은 경기에서 그의 빈자리가 그리 크지 않더라도 페퍼스 입장에서는 최장신의 미들 블로커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아쉬운 부분이다.

서재원과 하혜진의 키는 181cm, 필립스는 182cm로 194cm인 염어르형의 높이와 꽤 차이가 난다. 업친 데 댔친 격으로 상대인 IBK기업은행은 최근 한층 강해진 아베크롬비의 공격으로 매서운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9연패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페퍼스가 부상 악재 속 IBK기업은행전을 잘 풀어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기 기자 jinggi@

"타이거즈 소크라테스~" 다시 듣는다

KIA 120만달러에 재계약

소크라테스가 2024시즌에도 KIA 외야를 지킨다.

KIA 타이거즈가 18일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Socrates Brito·31)와 계약금 30만, 연봉 50만, 옵션 40만 달러 등 총액 12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 이와함께 소크라테스는 3년 연속 KIA와 동행한다.

소크라테스는 지난 2022년 KIA 유니폼을 입고 KBO 무대에 첫 선을 보였다.

시즌 초반 적응의 시간을 보냈던 소크라테스는 이내 KIA를 대표하는 타자로 자리했고, 중독성 있는 응원가로도 화제를 모았다. 실력과 인기를

비탕으로 KBO에서의 첫해 올스타 베스트 12에 선정된 소크라테스는 SSG 김광현의 공에 맞아 코뼈 골절을 당하면서 올스타 무대는 밟지 못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올 시즌에도 팬들의 선택을 받아 '별 중의 별'로 올스타전에 참가, 홈런포도 장식했다.

올 시즌 142경기에 나온 소크라테스는 타율 0.285, 20홈런, 96타점, 91득점, OPS 0.807을 기록했다. 안타, 홈런, 득점, 타점 팀 내 1위다.

"내년에도 KIA와 동행하게 돼 기쁘다"고 재계약 소감을 밝힌 소크라테스는 "팀 동료들과 내년 시즌 잘 준비해 타이거즈 팬들에게 꼭 우승을 안겨주고 싶다"며 각오를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